

사설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눔의 실천을

이제 며칠만 지나면 설 연휴 기간이다. 대이동이 이뤄질 것이다. 할육의 정이 그리워 귀향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귀성도 할 것이다. 휴양지 등 제3의 장소에서 모이기도 할 것이고. 모임의 형태가 그 무엇이든 간에 가족과 친지들은 물론 지인들을 만날 것임은 분명하다. 그동안 묵혀두었던 이야기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리운 사람들과 상면하는 아름다움이 그려진다. 특히 이번 설은 따사로운 봄 햇살을 빨리 출산할 것 같다. 양력 2월 중순이 설날이기 때문이다. 예년과 같은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도 없는 겨울이라 더더욱. 이렇게 해서 이번 겨울은 갈 것 같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추위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듯한 사람들도 많아 보인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로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면서 극빈자층이 나날이 증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체현상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부양하는 데 국가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주위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절망하다는 전언이다. 설날은 다가오고 있는데도 찾아주는 발걸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갖가지 생활상의 고통으로 힘든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요구호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번 겨울이 더 추운지도 모른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눔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에 온기가 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누는 것은 많이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이웃들에게 나눠 주도록 하면 어떨까. 많은 재산을 모았을 때 함께 나누겠다는 생각만 가지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은 신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욕망을 멈추게 하는 것은 단지 죽음일 뿐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올 때 누구나 맨몸이었다. 갈 때 역시 맨몸일 뿐이다. 많은 것을 가져다도 하더라도 결코 저승까지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유물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소유물 여부에 따라 행복도가 결정된다면 이 세상의 행복은 모두 가진 자들만의 것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라. 그들이 모두 행복해 보이든가. 아니다. 오히려 그만큼 더 많은 고민과 원할치 못한 가정사를 가진 경우도 많다.

행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행복의 지름길은 마음이 풍부해지는 것이다.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나눔이다. 길거리를 걷다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단돈 1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쥐면 사람은 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감을 주는지를. 하루 내내 즐거운 마음이 가슴 속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번 설날을 즈음해 나눔을 실천해보자. 달콤한 행복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으로 물밀듯이 밀려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기부 천사로 유명했던 김춘희 할머니가 우리 사회에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월남인이었던 김 할머니는 식당과 공장 등을 전전하면서 다치는 대로 마일을 했다. 별세할 때까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였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부자였다. 그리고 행복했다. 수급자로서 근근이 생활하면서도 매년 기부한 액수가 밝혀진 것만 해도 천 수백만 원이었다. 그러면서 더 줄 게 없다고 미안해했다는 사실이다. 별세하면서는 자신이 살고 있던 옥탑방 전세금 1천5백만 원까지 기부하고 몸은 고려대 의대에 기증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천사처럼 영원히 떠나갔던 것이다. 가득 축적된 행복만을 안고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는가.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스> (062)528-4566
회장실 (내선)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원

역사적으로 이 분야에서 유명한 예는 중국의 한비자와 이사(李斯, 중국 진나라의 법가사상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두 사람의 견원(犬養, 개와 원숭이) 관계는 마침내 한 위대한 철인을 죽임으로 내몰았으니. 한비자는 소년 시절에 이사와 함께 대우학자인 순자에게서 배웠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는 진나라에게 많은 땅을 빼앗긴 채,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마음이 답답해진 한비자는 왕에게 편지를 띄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건의하였다. 그러나 그의 충경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성격이 과벽(乖僻, 이상아릇하고 까다로운)한 한비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하여 이제는 글로써 자신의 울분을 풀겠다는 마음에서 10만여 자나 되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한비자』이다. 중국 고대 법가들의 사상과 주장을 담은 이 책은 인간과 권력에 대한 색다른 철학을 담고 있는 명저(名著)이다. 그러나 왕은 책을 눈여겨 보지 않았으며, 한비자가 말더듬이라는 이유로 등용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책을 가지고 진나라의 시랑에게로 갔다. 진시황은 그것을 읽어보고, “참으로 내가 이 사람을 만나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죽어

우정이 철천지 원수로-한비자와 이사

도 여한이 없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사가 “이것은 틀림없이 한비자의 저술인데, 저는 이 자와 함께 공부한 바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며 “한나라에 가면, 반드시 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고 아뢰었다.

이에 진시황제는 한비자를 만나볼 욕심으로, 한나라를 급히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시랑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오자, 그 공격의도를 알아차린 한나라 왕이 즉시 한비자를 진나라로 보냄으로써 화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한비자를 직접 만난 시랑은 그의 탁월한 견해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또한 크게 환대하였다. 그러나 친구인 이사는 학



강성호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호 철학티비, '강성호 문학티비' 운영중

생 시절에 자신이 한비자보다 못한 줄을 이미 알고 있던 데다, 그가 시랑의 총애까지 받게 되자 심한 질투심을 느꼈다. 그래서 어느 날, 시랑 앞에 나가 참소하여 말하였다. “한비자는 한나라의 공자(公子, 지체가 높은 집안의 자제)입니다. 그는 자기의 조국 한나라를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결국 진나라를 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임금께서 그를 등용하지도 않고 불려오지 않았는데도, 돌려 보낸다면, 천하를 통일하는 데 후환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일수록, 그에게 죄명(罪名)을 씌워 죽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비자를 모함하는 이 사 자신도 따지고 보면, 초나라 사람으로서 진나라가 조국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였다. 우둔한 시랑은 이사의 간교한 말을 믿고 한비를 하옥시켰지만, 그를 죽일 의향까지는 없었다. 이에 안달이 난 이사는 시랑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몰래 하수인을 시켜 독약을 보내 자살하도록 명령하였다. 한비자는 이사의 모함을 눈치 채고 여러 차례 시랑에게 상소하였으나, 끝내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죽고 말았다. 결국 그의 억울한 죽음은 동문수학(同門受學, 같은 스승 밑에서 함께 배운)한 친구의 손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사 역시 조고(趙高, 진나라의 환관)의 참소로 처형당하고 말았다. 나중이야 모든 것을 깨달은 시랑이 아직도 한비가 살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의 죄를 벗겨주었다. 그러나 이미 한비의 몸은 백골(白骨)로 변해 있었다. 결국 친구를 시기 질투한 그 못된 심보가 위대한 친구를 사지(死地)로 몰고 그 스스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가정 내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집 대피계획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불이 났을 때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가족끼리 어떤 역할을 맡을지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집 대피계획의 첫 단계는 집 안의 위험요인을 찾아보는 것이다. 콘센트에 너무 많은 전기제품을 꽂아 두거나, 전기장판을 접어 사용하는 행동은 화재 발생 가능

우리집 대피계획,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쉬운 준비

성을 높인다. 또한 주방에서 불을 사용할 때 주변에 휴지나 수건 같은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대피 경로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침실에서 거실, 현관, 계단을 거쳐 밖으로 나가는 기본 경로를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현관 쪽에 불이나 연기가 심해 나갈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베란다나 완강기 등 두 번째 탈출 방법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가족 역할 분담도 안전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은 119 신고를 받고, 다른 사람은 어린이나 노약자를 돕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외부로 대피한 후에는 모일 장소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필수다. 아파트 놀이터, 단지 정문, 학교 운동장 등 모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하다. 집합장소가 정해져 있을 경우, 가족이 흩어지는 상황을 예

방하고 대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대피계획은 한 번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걸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동해 보면 어두운 곳, 장애물, 위험요인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대피계획을 더 안전하게 보완할 수 있다.

우리집 대피계획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수칙이다. 10분만 투자해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각 가정의 스스로의 대피계획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길 바란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연웅

오늘의 운세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음력 12월 22일)

Grid of 12 zodiac horoscopes with icons and text. Includes signs like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